

제78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총회

주제 다비다 같은 여성(사도행전 9장 36~43절)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임원

증경회장	김 경익 권사(남부교회)	회장	정현숙 권사(구로중앙교회)
김영자 장로(정화교회)	수석부회장	이혜경 권사(ambahuri교회)	임순남 권사(꿈을이루는교회)
임인숙 권사(너드림교회)	부회장	김애경 권사(등대교회)	김인순 권사(강서교회)
권희자 권사(강서교회)	총무	김미향 권사(두란노교회)	이금옥 권사(신수동교회)
하봉희 장로(거룩한씨성동교회)	서기	김슬기 권사(두란노교회)	백우현 권사(거룩한씨성동교회)
박미정 권사(운화교회)	회계	화명옥 권사(주님앞에제일교회)	정영애 장로(신월동교회)
정은진 권사(창신교회)	부회계	박미정 권사(운화교회)	석은진 권사(창신교회)
백원선 권사(신수동교회)	건축부총무	김순자 권사(등촌제일교회)	건축부총무
김순자 권사(등촌제일교회)	서희자 권사(강서교회)	서희자 권사(강서교회)	건축서기 회계 백원선 권사(신수동교회)
황경숙 권사(꿈을이루는교회)	건축사업부	황경숙 권사(꿈을이루는교회)	건축사업부
조혜정 권사(우리교회)	관계관	조혜정 권사(우리교회)	관계관
천양단단장	친양단	백원선 권사(신수동교회)	친양단
관계관	친양단	친양단	친양단

초대의 글

합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여전도회에 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성 선교2세기를 맞이하여 교단과 교회와 세상에서 맑게 진 사명 잘 감당하며, 각 지연회의 활성화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 가는 지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제78회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이 뜻깊은 자리에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과 여전도회 회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회장 정현숙 권사 드림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남전도회전국연합회 제37회 정기총회 결과보고

인사의 말씀

합렐루야!
2024년도 임원으로 세우셔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37회 정기총회를 은혜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기도와 헌신해 주신 고문님 이하 모든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결기독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음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맑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섬기겠습니다. 교단발전에 기여하는 남전도회전국연합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일들은 격려해 주시고, 잘하는 일에는 칭찬해 주시므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동안 예성교단 산하 모든 교회의 남전도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총회장님을 비롯한 총회 임원진과 목사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5일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남전도회전국연합회

제37대 회장 노재익 장로 외 임원일동 드림

회장



노재익 장로
한사랑교회



나윤찬 장로
운양교회



이장호 장로
비산동교회



차천용 장로
남부교회

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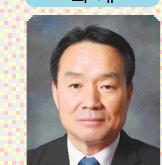
오광록 장로
주님앞 예체일교회

부서기



김응하 장로
비산동교회

회계



김영각 장로
운양교회

부회계



윤장성 장로
서울반석교회

감사



배태호 장로
시흥종암교회

감사



윤세곤 장로
비산동교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남전도회전국연합회

성결교회의 정체성과 한국 웨슬리언교회 6개 교단의 기원

성결교회의 계보

- 성자 예수그리스도(성부 하나님의 둘째자)
- 성 바울(그리스도를 그대로 본받은 자)

개신교의 영원한 3대 스승

- 독일의 마틴 루터(성자 신학의 창시자)
생애/1483.11.10 ~ 1546.02.18(63세)
학력/비텐베르크 대학

- 프랑스의 존칼빈(성부신학의 창시자)
생애/1509.7.10 ~ 1564.5.27.(55세)
학력/동파카칼리지

- 영국의 존웨슬리(성령신학의 첫시자/성결교회의 뿌리)
생애/1703.6.17 ~ 1791.3.2.(88세)
학력/옥스퍼드대학교

- 미국의 마틴루터(감리교 성결운동 부흥사)
생애/1853 ~ 1901(53세)
학적/오수철 성결운동가/한국성결교회 창설자

- 미국 길버트 키우만(감리교총신)
만국성결교회에서 동경에 파송선교사/동경성서학원에서 사역
1949년 주한선교사로 파송 1973년까지 사역

- 한국 정빈과 김상준 동경성서학원수학
길보론과 카우만의 도움을 받아서 1907년 5월 서울 종로 동경성전도원(현. 중앙성결교회) 개설 오늘의 성결교회의 조직교회로 발전됨

- 1960년대 NCC 가입 등 이수로 기성과 문립 오늘의 예수교대한성결교회가 되었다.

한국 웨슬리언교회 연합운동의 역사

- 2003년 7월 14일-17일(3박 4일간) 웨슬리 탄생 300주년 기념 제1차 세계 웨슬리언국제대회가 LA 월서연합기독교에서 열리고 양기성 박사가 준비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시작되었다.
- 2005년 5월 24~26일까지 신촌성결교회에서 대표대회장 조중남 박사, 김선도 감독 공동대회장 이정우 목사, 김고광 목사, 시무총장 양기성 박사가 제2차 세계 웨슬리언국제대회를 열었다.
- 2006년 6월 14일 주일 음우동감리교회(김현옥 목사)에서 한국웨슬리언교회지도자협의회가 결성되어 되었다.
- 2007년 7월 LA에서 제3차 세계 웨슬리언국제대회가 열렸다.
- 2014년 9월 19일 양기성 박사가 서울신대 웨슬리신학연구소설립 2014년 10월 21일 양기성 박사가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웨슬리언국제대회장을 열었다.
- 2019년 9월 21일 이영훈 목사가 웨슬리언 6개교단 연합운동이 시작됨
- 2022년 기하성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에게 웨슬리언교단장 협의회를 조직할 것을 제안하여 2023년 3월 25일 국민일보 12쪽 ccmn에서 웨슬리언 6개 교단장 협의회를 창립하게 되었다.
- 2023년 5월 17~18일 제5차 세계 웨슬리언국제대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리게 되었다.
- 한국에 웨슬리언교회 설도는 400만 명에 이르며 현재 한국에서는 기감 기성 나성 구세군 기하성 6개 교단이 웨슬리의 성령신학과 성결운동에 마음을 같이하여 활발하게 성장하며 연합하고 있다.
- 한국웨슬리언교회지도자협의회를 창설한 양기성 박사는 1970년 유성성결교회 부흥성회에서 김동을 받은 후 2달간 철야기도 하

던 중 5월 24일 새벽 2시경 18세기 영국의 존 웨슬리가 체험한 불 같은 성령을 체험하고 1974년 5월 서울신학대학과 조중남 박사로부터 웨슬리강의를 듣고 크게 도전받고 웨슬리를 영적인 불모델로 삼고 50년 째 웨슬리의 성령신학과 성결운동에 일정하고 있다.

11. 오늘 이 시대 목회와 선교는 웨슬리의 성령신학과 성결운동이 절실히 시대이다. 개교회주의 개교단주의를 벗어나서 초대교회와 같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한국교회의 재부흥으로 세계를 구교 삼는 성령충만한 성결운동이 확산되기를 소원한다.

웨슬리언교회 6개교단의 현장 현법

기감교리장정2장 / 감리교 신앙의 강조점/ 웨슬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신령적 은총, 청의 성결로 이어진다고 보고 온전한 구원은 티락한 인간의 성결해지는 것이다.

기성헌법8조 / 초대창립자들이 성결교회를 창립하였음을 또 하나님의 교파를 만들려 힘이 아니라 곧 존 웨슬리가 주장하던 성결의 도리를 그대로 전하려는 시장 힘에 세워졌다.

예성헌법5조 / 본교회의 기원은 다음과 같다. 존 웨슬리의 성경적 복 을 신앙을 이어받아 동양 모든 나라에 성결의 복음'을 전하려는 시장에서 동양선교회를 조직하고 이하 성령

나성헌법 나사렛의 기원/ 역사적 기독교와 웨슬리주의의 성결유업인 기독교 신앙은 18세기 웨슬리의 부흥운동을 통하여 우리 나사렛 교인들에게 전해져 왔다.

구세군교회사사/ 감리교 목사였던 윌리엄 부츠는 영국의 노팅햄 제임스 코웨이 웨슬리언부흥사를 통해서 크게 감동을 받고 1865년 런던의 슬럼 가에서 노방전도자로 구제사역

기하성순복음교회기원 / 뉴욕의 감리교 여성성가대원 M.C.리먼지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오순절교회의 성결복음을 가지고 일본을 거쳐 한국에 입국 구세군 본영에 허리를 만나서 선교를 개시한 것이 오늘의 순복음을 교회이며, 기성교단 순회부흥사 이성동 목사의 천막성회에 참석한 최자실 씨가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고 서울 대조동에 천막교회를 개척하여 1960년대 대부흥하여 오늘날 세계최대의 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된 것이다.

기감, 기성, 예성, 나성, 구세군, 순복음교회는 한결같이 존 웨슬리의 성령신학과 성결운동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한 펫줄 한 협재교회임을 기뻐합니다. (시편 133편)



한국웨슬리언교회지도자협의회

기감·기성·기하성·구세군·나성·예성 / 김신대·목원대·협성대·구세군대·나사렛대·서울신대·성결대·한서대